



기아는 'THE 2022 스팅어'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아의 새 엠블럼이 적용된 'THE 2022 스팅어' 애스코트 그린 모델.

새 엠블럼 적용 ‘2022년형 스팅어’ 출시

기아, ‘애스코트 그린’ 추가…3천878만원부터

디자인 특화 ‘아크로 에디션’·리어 스포일러도

기아는 지난해 8월 선보인 스팅어 마이스터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2 스팅어’(이하 스팅어)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기아는 스팅어에 기아의 새 엠블럼을 적용하고 영국의 애스코트 경마장에서 착안한 외장색 ‘애스코트 그린’을 추가했다.

플래티넘 트림(등급)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레인센서와 후드 가니시를 기본 적용했고 상위 트림인 마스터즈에는 7인치 클러스터와 프로텍션 LED 헤드램프,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를 기본화했다. 디자인 특화 트림 ‘아크로 에디션’과 리어 스포일러도 추가했다.

최고·정점 (Acro), 무채색 (Achromatic)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크로 에디션은 19인치 디자인 휠과 블랙 스웨이드 헤드라이닝, 체인 볼륨 패턴 스웨이드 시트 등을 적용해 실내·외 고급감을 높였다. 가격(개별소비세 3.5% 기준)은 2.5 가솔린 터보의 경우 플래티넘 3천878만원, 마스터즈 4천275만원, 아크로 에디션 4천388만원이고 3.3 가솔린 터보의 경우 GT 4천678만원, 아크로 에디션 4천756만원이다. 한편, 기아는 ‘The 2022 스팅어’ 출시

와 함께 36개월 동안 매월 차량 가격의 약 1%만 납입할 수 있도록 차량 가격 최대 64% 유예, 2.5% 특별 저금리 적용, 유류비 일부 지원, 개인 고객 중고차 보장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매 프로그램 ‘1% 퍼포먼스’도 함께 마련했다. 기아 관계자는 “The 2022 스팅어는 고급스러움과 역동적인 요소를 더해 상품성을 높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함께 준비한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의 가치를 경험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제네시스 “2025년부터 신차는 전기차만”

럭셔리 전동화 선점…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203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부터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수소·배터리 전기차로 출시하고 2030년까지 8개 모델의 수소·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해 럭셔리 전동화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6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네시스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퓨처링 제네시스’ 영상을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영상에서 “제네시스는 완성된 라인업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제네시스의 담대한 여정의 시작점이자 제네시스가 혁신적인 비전을 통해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이날 그룹사 최초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기반의 전기차(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등 두 모델을 중심으로 한 ‘듀얼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고출력·고성능의 신규 연료 전지 시스템, 고효율·고성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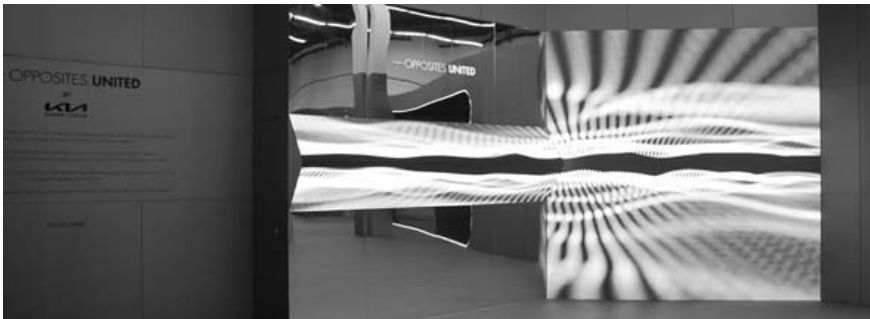
차세대 리튬이온배터리 등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2030년까지 총 8개의 모델로 구성된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40만대까지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년부터 기존 내연기관차 없이 사실상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동화 라인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원자재와 부품은 물론, 생산 공정을 포함한 브랜드의 모든 가치 사슬에 혁신을 도모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구체화했다. 장재훈 사장은 “2030년 40만대 판매

규모의 ‘100% Zero Emission Vehicle’ 브랜드로 자리할 것”이라며 “제네시스는 럭셔리를 넘어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전동화 시대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이미지를 공개한 첫 전용 전기차 모델 GV60도 선보였다. GV60은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 모델로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제네시스는 이와 함께 B필러(앞뒤 문 사이의 기둥)가 사라지고 앞뒤 차문이 서로 마주 보고 반대 방향으로 활짝 열리는 스테이지 도어, 좌석이 회전하는 스위블 시트, 전통 운물에서 영감을 받은 온열 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 콘셉트를 선보였다. 디자인 영역의 확장을 표현한 브랜드 필름 ‘디자인드 포 유어 마인드’도 공개했다. /기수희기자

‘미니밴 최강자’ 신형 카니발 출시 1년만에 10만대 팔렸다

기아의 신형 카니발이 출시 1년만에 국내 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6일 현대차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시된 4세대 카니발은 올해 8월 까지 10만1천60대가 판매됐다. 지난해에만 4만3천523대가 판매됐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5만7천537대가 팔리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승용차 모델 중에서는 올해 누적 판매량이 그랜저(6만1천762대)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판매량은 5천611대로 1위를 차지한 기아 스포티지(6천571대) 다음으로 많았다. 출시 초반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사전계약 첫날 2만3천대의 계약 대수를 기록한 신형 카니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도 꾸준히 매달 5천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니발이 가성비와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

며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현대차 스타리아, 혼다 오딧세이, 도요타 시에나 등을 제치고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고 보고 있다. 특히 4세대 카니발은 기존 모델보다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첨단 기능들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이고 4인승부터 7인승까지 시트 구성을 다양화해 패밀리카부터 업무용 차량까지 활용 범위를 넓힌 점도 인기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에는 의전용이나 고급 패밀리카로 활용될 수 있는 하이리무진 모델이 추가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최고급 모델인 하이리무진 4인승이 출시되면서 라인업이 더욱 확대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하이리무진 모델까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켰고, 디자인의 완성도와 편의성, 연비 등의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관을 들어서면 첫 번째로 보이는 조형물 ‘디자인 아이덴티티 모뉴먼트 디스플레이’.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아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가

새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 반영 작품 선봬

기아가 올해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참가해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직관적으로 반영한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6일 기아에 따르면 디자인을 통한 혁명의 표현을 뜻하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디레볼루션(d-Revolution)’에 맞춰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시각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오퍼짓 유나이티드’는 대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자 대비(Contrast)적인 개념을 결합해 만들어 낸 시너지로, 서로 대조되는 조형, 구성, 색상 등을 조합함으로써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동선을 따라 밝

고 어두운 전시공간을 넘나들며 영상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고 공간과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 반사, 투과 등의 리듬감 있는 요소를 통해 기아의 디자인 철학에 몰입하게 된다. 카림 하비브 기아 디자인담당 전무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담은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고객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아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철학을 통해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디자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아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는 지난 2009년 처음 참여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작품 전시를 통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대표 예술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수희기자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책임 A/S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오토매틱 수리 전문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우편 집중국

롯데 마트

힐스테이트 110동

타임 시티

현대 힐스테이트 101~109

신협

커자씨 교회

보훈 병원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급매 전문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상가건물]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매가:6억8,000(시세50%)

***가든경림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CMYK